Ⅳ. 모의논술로 실전에 대비해 보자.

2013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및 해설

chapter 04

1. 인문·사회계열

1) 모의 논술문제

[문항 1]

다음 제시문 [가] [나]의 공통 논제를 밝히고 그 논지를 비교 대조하라.(800~1,000자, 40% 배점)

가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가운데 시도했던 것을 정신적·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계속해갔다. 경제적 자유가 그러한 발전의 기반이 되었으며 중산계급은 그 투사였다. …중략… 개인은 근면과 지식과 용기와 절약 및 행운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경제적 부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 기대되었다. 따라서 성공의 기회라든가 실패할 위험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으며, 또한 각자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치열한 경제적 투쟁에서 죽거나 상처를 입는 일도 자기 자신의 책임이 되었다. 봉건제도하에서는 각 개인이 그 생활을 확장시킬 수 있는 범위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개인, 특히 중산계급의 구성원은—수많은 제한에도 불구하고—자기 스스로의 업적과 활동을 통해서 성공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하나의 목표를 발견하여 그것을 향하여 진력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때때로 가졌다. 그는 자기 자신에 의존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미신과 무시무시한 미신을 포기할 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점차 자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 …중략…

자본주의는 단지 인간을 전통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를 증대시켜 능동적이고 비판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자아를 성장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해가는 자유의 과정에 미친 하나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은 개인을 더 한층 고립시킴으로써 무의미함과 무력함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우선 다루어져야 할 요소는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 개인적인 활동의 원리이다. 모든 인간이 정연하고 뚜렷한 사회조직 속에서 어떤 고정된 위치를 지니고 있던 중세의 봉건제도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개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게 되었다. 그가 무엇을 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것이 되었다. 이 원리가 개성화의 과정을 촉진시킨 것은 명백한 일이며, 근대문화의 명예로운 측면을 이루는 데 중요한 항목의 하나로 항상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으로부터의 자유'가 점점 진전하여 갈 때, 이 원리는 개인 간의 모든 유대를 끊음으로써 개인은 동료로부터 고립되는 분리된 자가 되었다. …중략…

근대인은 자기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상 그의 생활을 자기의 것이 아닌 목적에 바치는 모순에 빠져 있었다. …중략… 근대인이 행동할 때 그 관심사가 된 자아는 사회적 자아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개인에 대해 밖으로부터 예상되는 역할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는 사회에 놓인 인간의 객관적인 사회적 기능을 단순히 주관적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근대적 이기주의는 참된 자아의 욕구불만에 입각한 탐욕이며, 그 대상은 사회적 자아이다. 근대인의 자아의 극단적인 주장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자아는 약화되어 전체적 자아의 일부분—지성과 의지력—으로 축소되고, 퍼스낼리티 전체의 다른 모든 부분을 제외하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다. …중략… 인간은 스스로의 세계를 건설했다. 공장과 가옥을 세우고, 자동차와 의복을 만들고, 곡물과 과일을 재배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만든 생산물과는 소원해졌다. 그는 실제적으론 이미 그가 세운 세계의 주인이 아니다. 반대로 인간이 만든 세계가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 그 주인 앞에 인간은 머리를 숙이고 될 수 있는 한 아양을 떨며 속이고 있다. 자기 손으로 한 일이 자기의 신이 된 것이다. 그는 자기 이익에 의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그의 전체적인 자아는 그의 손으로 만든 그 기계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지만, 일찍이 선조들이 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느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무의미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강하게 느낀다. …중략…

개인의 고독과 무력한 감정을 보통 사람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그것은 매일같이 판에 박은 듯한 활동,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견하는 확신과 칭찬, 사업에서의 성공, 모든 종류의 기분 전환, 즐거움, 교제, 유람 등에 의해 은폐된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불어도 빛은 나타나지 않는다. 고독과 공포와 혼미는 여전히 남는다.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것을 참을 수는 없다. 그는 '……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무거운 짐을 견디어 나갈 수가 없다. 그들은 소극적인 자유에서 적극적인 자유로 전진할 수 없는 한, 결국 자유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나

후기근대의 성과주체는 의무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복종, 법,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유, 쾌락, 선호가 그의 원칙이다. 그가 노동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쾌락의 획득이다. 그의 노동은 향유적 노동이다. 그는 타자의 명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명령하는 타자의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타자로부터의 자유가 해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유에서 새로운 강제가 발생한다는데 자유의 변증법이 있다. 타자의 자유는 나르시시즘적 자기 관계로 전도되며, 이는 오늘날 성과주체가 겪는 많은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된다.

타자와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보상의 위기가 찾아온다. 인정으로서의 보상은 타자 또는 제3자라는 심급을 전제한다. 스스로를 보상하거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칸트에게는 신이 보상의 심급이다. 신은 도덕적 업적을 보상하고 인정해준다. 보상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서 성과주체는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빠진다. 따라서 타자 관계의 부재는 보상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초월적 조건인 것이다. 오늘날의 생산관계도 보상의 위기를 불러온 또 다른 원인이다. 완결된 일의 결과로서 최종적이고 결정적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오늘의 생산관계는 완결을 가로막고 있다.

사람들은 열려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간다. 시작과 끝이 있는 완결의 형식은 사라져버렸다. …중략…

객관적으로 유효한,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식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조건이 주체를 자기 자신의 나르시스적 반복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런 까닭에 주체는 하나의 형태, 안정적인 자아상, 확고한 성격에 이르지 못한다. 즉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은 자아 감정의 고양을 위해 의식적으로 "회피"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 자체가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나르시스적 주체는 완결에 이르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를 잃고 열려 있는 공간 속에 흩어져버린다. 완결된 형식의 부재는 무엇보다 경제적 조건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개방성과 미완결성은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략…

과다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후기근대의 성과주체는 강력한 유대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우울증은 모든 유대를 끊어버린다. 슬픔은 대상과의 강력한 리비도적 유대 관계에서 나오며 무엇보다도 그 점에서 우울증과 구별된다. 반면 우울증은 대상이 없고 따라서 지향점도 없다. 우울증은 멜랑콜리와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멜랑콜리는 어떤 상실의 체험 뒤에 온다. 따라서 멜랑콜리는 그나마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재하는 자와의 부정적 관계가 멜랑콜리의 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우울증은 모든 관계와 유대에서 잘려나간 상태이다. 우울증에는 아무런 중력도 없다.

슬픔은 강렬한 리비도가 투여된 대상의 상실과 함께 일어난다. 슬퍼하는 자는 전적으로 사랑하는 타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후기근대의 자아는 리비도적 에너지의 대부분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한다. 그렇게 쓰고 남은 리비도는 계속 늘어나는 연락처와 일시적 관계에 배분되고 흩어진다. 매우 약한 리비도를 타자에게서 빼내어 새로운 대상에 투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다. 길고 고통스러운 "애도 작업"은 불필요하다. 소셜 네트워크 속의 "친구들"은 마치 상품처럼 전시된 자아에게 주의를 선사함으로써 자아 감정을 높여주는 소비자의 구실을 할 따름이다. …중략…

우울증에 자주 선행하여 나타나는 소진(消盡)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힘이 빠져가는 주권적 개인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자기 착취의 병리학적 결과이다. 개성을 확장하고 변형하고 새로 발명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 이면에서 우울증을 초래하는데, 그러한 명령의 원천은 정체성과 관련된 상품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정체성을 자주 바꾸면 바꿀수록 생산은 더욱 큰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산업적 규율사회가 변함없는 정체성에 의존했다면, 성과주의적 후기산업사회는 생산의 증대를 위해 유연한 개인을 필요로 한다. …중략…

문제는 개인 사이의 경쟁 자체가 아니고 경쟁의 자기관계적 성격이다. 그로 인해 경쟁은 절대적 경쟁으로 첨예화된다. 즉 성과주체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추월해야 한다는 파괴적 강박 속에 빠지는 것이다. 자유를 가장한 이러한 자기 강요는 파국으로 끝날 뿐이다. …중략…

이상 자아에 비하면 현실의 자아는 온통 자책할 거리밖에 없는 낙오자로 나타난다. 자아는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른다. 모든 외적 강제에서 해방되었다고 믿는 긍정성의 사회는 파괴적 자기 강제의 덫에 걸려든다. 21세기의 대표 질병인 소진증후군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 질환들은 모든 자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를 착취한다. 타자에게서 오는 폭력이 사라지는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한 폭력은 그 희생자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 한병철, 『피로사회』

[문항 2]

다음 제시문 [다]와 연관된 [라]의 새로운 해석의 설득력에 대해 논의하고, [문항 1] 의 제시문 [가] [나]와 다음 제시문 [마] [바]에서 추출한 논거를 활용하여, [사]의 '준명'의 대답을 추론하라. (1,300~1,500자, 60% 배점)

다

프로메테우스에 관해서는 네 개의 전설이 있다. 첫 번째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인간을 위해 신들을 배반했기 때문에 코카서스 산에 쇠사슬로 단단히 묶였고, 신들은 독수리를 보내어 자꾸만 다시 자라나는 그의 간을 뜯어먹게 했다고 한다. 두 번째 전설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쪼아대는 부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점점 바위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바위와 하나가 되었다. 세 번째 전설에 따르면 수천 년이 지나 그의 배신행위는 잊혀졌다. 신들도 잊었고, 독수리도 잊었고, 그 자신도 잊었다. 네 번째 전설에 따르면 근거 없이 되어버린 일에 모두 지쳤다. 신들도 지쳤고, 독수리도 지쳤고, 상처도 지쳐서 스스로 아물었다. 남은 것은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바위산뿐이었다. 전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한다. 전설은 진실의 근거에서 온 것이어야 하므로 다시 설명할 수 없는 것에서 끝나야 한다.

– 카프카, 『프로메테우스』

라

나는 또 하나의 재해석을 통해 이 프로메테우스 전설을 내적 영혼의 장면으로, 즉 오늘날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며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과주체의 심리적 기구에 관한 묘사로 파악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과 함께 노동도 가져다주었다. 성과주체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은 프로메테우스처럼 묶여 있다. 끝없이 다시 자라나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먹는 독수리는 성과주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제2의 자아(Alter Ego)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프로메테우스와 독수리의 관계는 자기착취의 관계인 셈이다.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간의 고통이란 피곤이라고들 한다. 따라서 자기 착취의 주체인 프로메테우스는 엄청난 피곤에 빠지고 말 것이다.

– 한병철, 『피로사회』

마

우리는 재물이나 쾌락 등과 같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비어 있는 항아리가 아니다. 행복만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물음을 무시한다. 삶에는 행복하게 느끼는 것 이상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원하고, 우리의 신념이 정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서가 사실에 근거하기를 원하고, 착각 속에 살지 않고 현실에 보다 정확하게 연결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보다 확실하게 쾌락이나 다른 경험들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실과의 실제적 연결이다. 외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다 큰 행복에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현실에 연결되기를 원한다.

행복이란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왜 행복의 역할이 그렇게 과장되는가? 고대하던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가 갖는 축복의 느낌과 같이 어떤 구체적인 순간에 그들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홀로 산책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순간의 특징은 충만함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또 다른 행복은 전체로서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이다. 행복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완전하고, 지속적이고, 깊고 충만한 만족이다. 이런 행복 개념에 의하면, 다른 어떤 것도 행복한 삶보다 우월할 수 없다. 물론 이런 행복 개념은 우리

가 왜 행복하기를 원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중략…

배운다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관념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점에서는 모든 시대가 변화의 시대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역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역동적 시대 즉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변화를 대하는 태도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변화를 바라지 않아 무엇이든 현재와 달리 됨에 거부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된 것은 모두 거부하고 없애려고 하는 태도이다. 혁명가들은 악뿐만 아니라 오래된 좋은 것들도 파괴한다. 이들 중간쯤에는 과거의 좋은 가치들이나 선을 유지하고 새로운 발견이나 통찰을 사용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의 역동적 통합을 원한다. 이들은 현재가 과거로부터 생겨났고 미래도 또한 질서 있고 안정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오기를 원한다.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들과 협동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문명사는 인간이 보다 광범위한 관계에 연계되어 있다는 장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개념은 가족에서 혈연적 소집단으로, 소집단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그리고 국가에서 세계 질서로 발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육은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감상할 줄 아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배운 사람은 보다 큰 질서의 한 부분인 거대한 영적(靈的) 질서에 민감할 줄 아는 사람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교과서

바

이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커다란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그는 분명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모든 사람은 하늘이 바라는 만큼, 또는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만큼만 행운을 얻을 것이며,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시샘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의 복지를 위해서나 그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하려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그러한 사유방식이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된다면 틀림없이 인류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누구나 동정심과 호의에 대해 떠들고 그때그때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속이고 인간의 권리를 팔거나 침해하는 경우보다 훨씬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비록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그러한 준칙에 따라 잘 유지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원칙이 자연법칙으로서 모든 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바라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결심한 의지는 자기 자신과 대립하는데,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동정심을 필요로 하면서도, 자기의 의지에서 생겨난[자기가 만든] 자연법칙 때문에 소망하는 모든 희망과 도움 자체를 빼앗기는[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사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2) 해설

[문항 1]

◉ **질문의 요구** 질문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제시문 [가] [나]의 공통 논제를 밝히는 것과, 그 공통 논제에 대한 논지의 유사성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대조하라는 것이 그 둘이다. 공통 논제를 밝힐 때는 그것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야 한다. 비교 대조할 때는 그 기반과 맥락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좋다.

◉ **제시문의 구성** 제시문은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지는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최근 화제작인 한병철의 『피로사회』에서 가져왔다.

◉ **제시문 읽기** [가]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면서 근대적 개인은 전통적 속박(자연이나 신으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획득했으나, 역으로 자아가 축소되는 결과를 빚어, 역설적으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과 자기 책임 하에 일을 하지만, 그 자유의 과정에서 개인들은 타인과의 유대가 단절됨에 따라 고립되고 무력해지며 자기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이러한 근대적 자유의 부정적 증후들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은폐되지만, "고독과 공포와 혼미"에서 근대적 개인이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자유의 양면성으로 인해 근대적 개인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나]에서 후기근대의 개인(성과주체)들은 "복종, 법,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유, 쾌락, 선호"라는 원칙으로 행동한다. 그는 명령하는 타자의 부정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의 경영자가 되어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그 자유가 해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타인과의 유대가 끊어지면서 자기 노동에 대한 보상의 심급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아를 상실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후기근대의 생산관계의 비완결성과 자기 욕망의 무제한성으로 인해 자기 일에 대한 만족감을 지니기 어렵다. 그래서 후기근대의 성과주체들은 자기에 의한 자기 착취를 부지불식간에 행하며, 그런 과정에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자유를 가장한 자기 강요로 인해 성과주체들은 절대적 경쟁 속에서 자기를 소진하고 파국에 이르기도 하기에 매우 위험하다.

◉ **공통 논제 파악** 두 제시문을 읽어본 결과 공통적으로 다루는 논제는 '자유의 양면성' 혹은 '자유의 곤혹(딜레마)'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근대와 후기근대의 개인들이 겪는 자유의 곤혹스런 양면성을 다루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유사점 비교** 자유의 곤혹스런 양면성을 다룬 두 제시문의 유사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유는 외형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다. 이 자유의 양면성으로 인해 개인은 곤혹스러워진다. 둘째, 자유의 획득 혹은 발전을 통해 개성화 개별화가 촉진된 것은 좋으나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유대가 단절되어 고립되고 분리되고 소외된 개인이 되고 만다. 셋째, 그 결과 개인의 자아정체성이나 만족감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 **차이점 대조** 두 제시문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가]는 규율사회인 근대적 개인 주체의 자유의 양면성을 다룬 것이고, [나]는 후기근대의 성과주체의 자유의 양면성과 역설을 다룬 것이다. 둘째, 생산관계의 차이에서 [가]는 조직과 개인의 관계가 문제되는 반면 [나]에서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셋째, 자유의 양면성으로 인한 부정성의 정도 면에서 [가]보다는 [나]가 훨씬 심각한 진술을 하고 있다. [가]에서 소외된 개인은 "고독과 공포와 혼미"에 사로잡히는 정도이지만, [나]에서 성과주체는 소진증후군이나 우울증에 빠져 파국에 이를 수 있을 정도라고 경고한다.

[문항 2]

◉ **질문의 요구** 질문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제시문 [다]와 연관된 [라]의 새로운 해석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요구와, 제시문 [가] [나] [마] [바]에서 추출한 논거를 활용하여 [사]의 '준명'의 대답을 추론하라는 요구이다.

◉ **제시문의 구성** 제시문은 잘 알려진 그리스 신화 프로메테우스 테마를 재해석한 카프카의 짧은 단편([다])과 그것을 후기근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라], 고등학교 교과서의 행복과 관련한 단원([마]),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에서 가져온 부분([바]) 및 교과서 학습활동에서 가져온 [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발문의 요구대로 〈문항 1〉의 제시문 [가] [나]도 여기에 포함된다.

◉ **제시문 읽기** [다]는 유럽의 문화 전통에서 프로메테우스 테마가 다채롭게 변형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글이다. 인간을 위해 신들을 배반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응징설, 고통으로 인한 퇴행적 위축설, 망각설, 피로설 등을 카프카는 흥미롭게 엮었다. 여기에 [라]는 새로운 해석을 보탠다. 현대의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독수리를 '제2의 자아'로 파악하여 프로메테우스와 독수리의 관계를 "자기착취의 관계"로 재해석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교과서에서 따온 [마]는 행복의 내외적 조건에 대해 설명한다. 행복은 타인이나 현실과 구체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내면세계를 풍부히 해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즉 내적으로는 내면세계의 심화를 외적으로는 관계의 확충을 통해 충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에서는 독자적 유아론에 가까운 자연법칙을 언급하면서 그 한계를 논한다. 그 자연법칙을 따르면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동정심"이라는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사]에서 준명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다. 그런 준명에게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 **[라]의 새로운 해석의 설득력** 단일하고 강고한 이성을 강조하던 이성중심주의를 넘어서 심리학에서 언급하는 제2의 자아나 무의식 등은 인간의 복합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다. 인간은 결코 단일한 자아로 살 수 없다. 파우스트 테마 등이 보여주는 이중자아 모티프를 보더라도 인간은 얼마든지 제2, 제3의 자아와 겨루면서 나름의 자기정체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먹는 독수리를 제2의 자아로 상정하고, 프로메테우스와 독수리의 관계를 "자기착취"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는 것은 [나]에 제시된 후기근대의 생산관계나 성과주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뚜렷한 논리를 확보하게 된다.

◉ **[사]의 '준명'의 대답 추론** [사]에서 준명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다. 그런 준명에게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대답 과정에서 [가] [나] [마] [바]에서 추출한 논거를 활용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준명의 생각을 평면적으로 지속시키면 곤란하고, 네 제시문들의 논거를 통해 반성적 사고를 보여주어야 한다. [가] [나] [바]에는 준명이 자신의 생각 안에 단순하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들어 있다. 자유롭게 노력하지만 자신이 만든 세계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역으로 그 세계의 소외된 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가]), 타인과의 유대를 상실한 채 자기 중심으로 절대적 경쟁 상태 혹은 자기착취 상태에 이르면 심각한 자기소진이나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점([나]),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이라는 가치를 배제하면 결국 자기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바]) 등이 그 이유이다. 이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마]에서 언급하는 행복 추구 방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적으로는 타인과 현실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내적으로는 내면을 풍요롭게 하여 깊은 충만감에 이를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명은 결국 자신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반성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더 깊게 하고, 경제적 풍요만이 아닌 내면적 풍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여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계급적 문제를 비롯한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사회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대답은 주어진 제시문의 논거를 직접 활용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술의 정당한 방향이 되기 어려움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